

주요 조사결과

다문화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NSW 주민 835명을 대상으로 12개 언어로 다문화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92개의 서로 다른 소수민족 혹은 문화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자원봉사는 비영리 단체가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가장 빈번히 자원봉사를 하는 부문:

- * 가르치기 * 코치하기 *
- * 행정 혹은 자원 지원제공 *



남을 돕는다는 열망 이 외에 자원봉사의 주된 동기는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의 기술 및 경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다문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여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정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에는 다양성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자원봉사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 * 시간 부족 * * 탈진 *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원봉사의 주된 동기는 대의 옹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를 더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통 자원봉사 하려는 장래 의도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유어라국의 개디걸 종족이 본 센터가 자리한 땅의 전통적인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주변 대지에 소재한 장소 및 지역사회와 갖는 결속의 중대함을 인지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원주민 원로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NSW 다문화 자원봉사 보고서 주요 조사결과



The Centre for Volunteering

자원봉사 센터
3층, 글로스터 스트리트 40번지
시드니 NSW 2000
전화: 02 9261 3600
이메일: info@volunteering.com.au
W: volunteering.com.au

© The Centre for Volunteering (NSW), 2022



The Centre for Volunteering

주요 조사결과

포커스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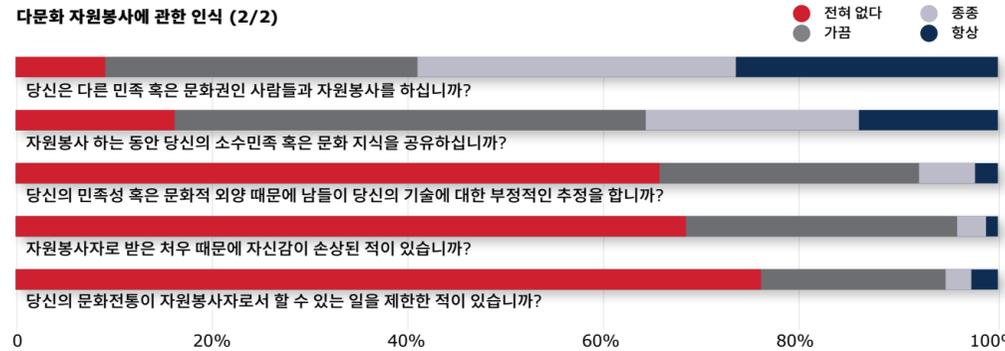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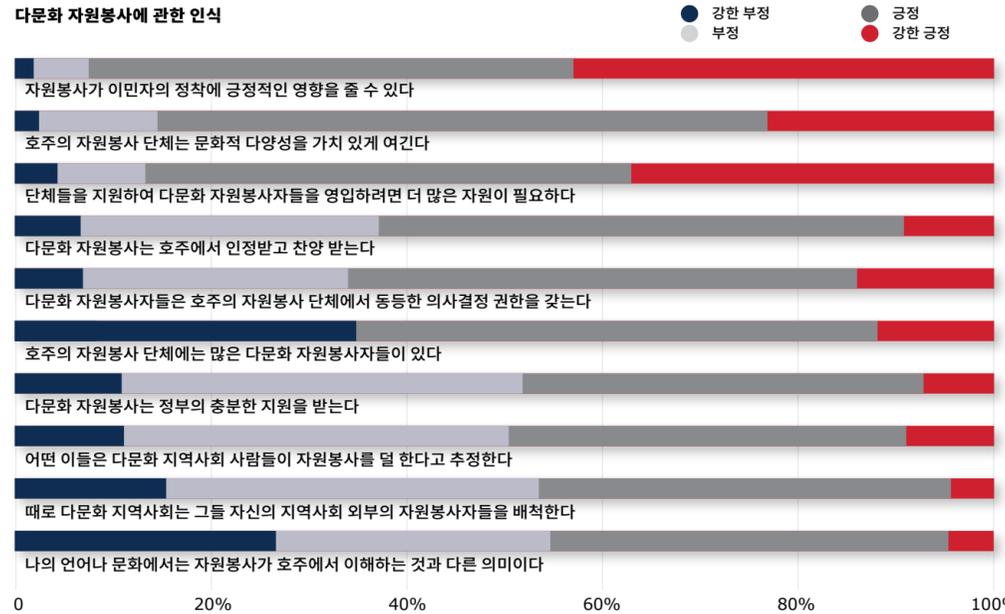


민족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16명의 다문화 자원봉사 전문인 그룹을 선별하여 4회에 걸친 반구조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다문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응답을 다섯 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후속 조사의 정보로 이용하였습니다.

- 1. 문화**
 자원봉사는 다문화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내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경험의 중심에 있습니다.
- 2. 활동**
 다문화 지역사회에 의한 자원봉사 행위는 때로 과소평가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적으로 하는 행동이 때로 곱해 됩니다.
- 3. 혜택**
 다문화 자원봉사자들은 한층 높은 사회적 연대감 및 소속감을 누립니다. 다문화 사회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가 자원봉사로 혜택을 받습니다.
- 4. 장벽**
 다문화 자원봉사자들은 때로 '주류' 자원봉사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낍니다. 여기에는 참여, 인정 및 의사결정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 5. 지원**
 다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자원봉사자 관련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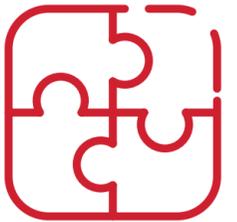
다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인식

다음의 도표는 NSW 주민 (다문화 및 백인 호주인 모두) 들의 자원봉사 실태입니다. 연령, 성별, 거주지, 민족성, 영어 언어능력 별로 그리고 그들이 자원봉사한 시간 수에 따라 질문에 어떻게 대답 하였는지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보고서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인종차별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와 관한 인종차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 소수민족, 영어 언어능력 그리고 자원봉사한 시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고서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제시하는 바로는, 고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테두리 안에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자원봉사자 관련 단체나 옹호단체들이 우려할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생태계 내에서는 자원봉사 매니저가 인종차별을 가장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봉사자 다섯 명 중의 하나는 여전히 매니저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했거나 이들이 차별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의 테두리 안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덜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자원봉사 하는 동안 일반 지역사회로부터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음을 시사합니다.

